

# 보험사 CEO 실적 악화에 연임 불투명... 세대교체 관심

## 임기 만료 앞둔 보험사 CEO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실적 감소에도 신임 두터워  
**허정수 KB생명보험 대표**  
결격사유 없으면 연장 무난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 사장**  
실적개선 부족에 연임 적신호  
**홍재은 NH농협생명 사장**  
올해 취임, 교체가능성 낮아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허정수 KB생명보험 대표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 사장



홍재은 NH농협생명 사장

올해 연말 임기만료를 앞둔 보험사 CEO(최고경영자)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저금리, 손해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업계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들의 연임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기점으로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허정수 KB생명보험 대표,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 사장, 홍재은 NH농협생명 사장 등의 임기가 만료된다. 업황 악화로 연임과 교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인사관행에 따라 거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윤중규 오른팔’ 양종희, 재신임받을까**  
지난 2016년 취임한 양종희 KB손보

대표는 연임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 대표는 이미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4년째 KB손보를 이끌고 있다. 통상 KB금융은 사장단 임기를 ‘2년 임기에 1년 연임(2+1)’으로 운영한다. 경영성과를 평가해 연임에 성공하면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양 대표의 교체를 점치는 이유는 최근 KB손보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계열사 중 유일하게 실적이 감소했다. KB손보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67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5% 감소했다. 누적 순이익도 23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줄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반면 양 대표는 윤중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오른팔’로 평가받을 만큼 신임이 두터다. 이번에도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윤 회장의 임기가 아직 1년 남아 있어 무리한 교체가 없을 것이라 관측이다.

윤 회장과 양 대표는 KB금융지주 전략기획 부사장과 상무로 손발을 맞춘 사이다. 특히 양 대표는 지난 2015년 KB금융이 옛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총괄하며 안정적인 연착륙을 이뤘다는 점에서 윤 회장의 신임을 받았다.

허정수 KB생명 대표의 경우 연임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양호해 결격사유가 없다면 임기 1년 연장이 무리 없다는 평가다. 임기 첫해인 지난해에는 부진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148억원으로 전년(211억원) 대비 29.9%(63억원) 감소했으나 올해 3분기에는 전년 대비 35.8% 증가한 182억원의 실적을 냈다.

인수합병(M&A) 전문가로 불리는 허 대표는 KB금융의 생보사 M&A 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017년 윤 회장은 “생명보험 쪽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강하려 한다”고 밝힌 뒤 허 대표를 내정할 바 있다.

◆ **인사관행에 엇갈리는 오병관·홍재은 사장**

NH농협금융그룹의 계열 보험사 CEO들의 거취는 인사관행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통상 농협 계열사 임기는 공식적으로 1년으로 ‘1+1년’ 임기를 보장할

는 관행이 있지만 2년 임기를 넘긴 전례가 없다.

오병관 NH농협손보 사장은 교체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취임한 이후 임기 2년 동안 농협손보의 실적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 만큼 농협의 인사관행을 넘어 연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 감소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지만 가을에 집중된 태풍피해 등의 영향으로 손해를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오 사장 교체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다음 농협손보 사장 후보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보험이 중심이 되는 농협손보의 실적을 개선하려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는 실적이 부진하지만 올해 취임했다는 점에서 1년 만에 교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생명의 경우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2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현대제철

### 실적부진·노사갈등 곤혹

현대제철이 실적부진과 노사갈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3분기 영업이익이 고로사업 진출 이래 최저인 341억원에 그친 데 이어 창립 이래 최초로 노조 5개 지회가 뭉쳐 단일교섭을 하는 중이다. 현대제철 노사는 매주 목요일마다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내타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우선 제품 가격 인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대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강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현대제철은 최근 몇 년간 현대기아차향 자동차강판 가격 인상에 실패하며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연내 타결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이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자동차강판 가격은 2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다.

노사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현대제철은 노동조합과 올해 임협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에 현대제철은 동결로 양보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31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영업이익의 15%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 노사는 오는 7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 돌입한다.

/정연우기자 yw964@

# 삼성·LG 전장산업 본궤도 오르나... 매출 전년비 14% 성장

## 3분기 이후 매출 1조 이상 유지 여전히 비싼 수리비는 아쉬워

국내 자동차 전자장비(전장) 업계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국산 전장에 주목하면서 흑자 전환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3분기 LG전자의 전장사업부인 VS 사업부 매출액은 1조3401억원으로 전년보다 14%나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여전히 손실을 유지하며 -601억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난해 3분기 이후 매출 1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그 밖에 LG그룹에서는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등도 전장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LG화학 역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적지 않은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LG는 지난해 그룹내 전장 사업을 주도할 자동차부품팀을 신설하고 김형남

부사장을 외부에서 영입한 바 있다.

LG가 만드는 전장 부품은 다양하다.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물론이고, 모터와 배터리팩, 등화장치와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ADAS)까지다. 특히 LG디스플레이가 만드는 LCD 패널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임러와 BMW, 르노와 현대자동차 등이 LG디스플레이와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고 알려졌다. 높은 내구성과 안정적인 성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GM은 LG가 만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째로 도입한 대표적 업체다. 전기차 볼트EV를 시작으로 이쿼닉스와 트래버스 등 신차들이 모두 LG 제품을 품고 있다.

전기차도 GM은 애누리 없는 ‘LG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볼트EV에 구동모터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 11종을 LG에서 공급받았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공급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스타운 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새로 건설하는 배터리 공장 설립 역시



삼성전자 디지털 콕핏.

/삼성전자

LG화학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 유력 시된다.

오스트리아 ZKW도 LG 인수 후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 더 몸값을 높이며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에는 포르쉐와 람보르기니 등 고급 브랜드와도 거래선을 열었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ZKW를 인수한 후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분위기”라며 “럭셔리 모델에서도 ZKW 도입을 늘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전장 사업을 주요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후 자동차 업계에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디지털 콕핏’이 바로 삼성전자 전장기술력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제품이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뿐 아니라 ADAS 등 차량 제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엑시노스 오토’를 중심으로 OLED 디스플레이와 하만 스피커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한 곳에 담은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우선 아우디 차세대 모델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다.

포르쉐의 최신형 전기차인 타이칸에는 이미 삼성전자 OLED 패널이 장착됐다. 테슬라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자사 자율주행 칩셋 수주를 맡긴 이후 유도 삼성전자의 전장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LG전자도 반도체 부문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퀄컴과 손을 잡고 스냅드래곤 오토모티브 개발 플랫폼을 공급받기로 한 것.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에 다소 뒤떨어지는 상황을 타계할 묘안으로 풀이된다.

국산 전장이 글로벌 자동차를 뒤덮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싼 수리비는 소비자들에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외로 수출한 제품을 역수입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을 단순히 장착하는 게 아니라, 생산 공장에서도 개량을 거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바로 조달할 수는 없다”며 “다만 판매량이 국산차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대책을 강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LG화학